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1. 25.(화) 08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	책임자	과장 김명규 (044-215-2710)
		담당자	사무관 신동현 (shindonghyun@korea.kr)

'21년 4/4분기 및 연간 실질 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

- '21.4/4분기는 **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.1% 성장** -
- '21년 **4% 성장을 통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달성** -

- 1.25일(08:00) 발표된 '21년 4/4분기 실질 GDP(속보치)는 전기대비 +1.1%, 전년동기대비 +4.1% 성장하고, '21년도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4.0% 성장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

※ 실질GDP	'20.1/4	2/4	3/4	4/4	'21.1/4	2/4	3/4	4/4
- 전기비(%)	△1.3	△3.2	2.2	1.1	1.7	0.8	0.3	1.1
- 전년동기비(%)	1.5	△2.6	△1.0	△1.1	1.9	6.0	4.0	4.1

1. '21.4/4분기 GDP 동향

- **민간소비·재정·수출이 성장세 반등을 견인(전기비 1.1% 성장)**

- ❶ (민간소비) 10~11월 방역조치 완화, 상생지원금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서비스·준내구재 중심으로 반등 <전기비 3/4→4/4, △0.2→1.7%>

* 서비스업 생산지수(S.A) : ('21.1/4)108.5 (2/4)110.3 (3/4)111.3 (10)111.5 (11)113.7

* 준내구재 소매판매지수(S.A) : ('21.1/4) 98.0 (2/4)107.0 (3/4)108.0 (10)114.9 (11)108.3

- ❷ (정부소비) 적극적 재정집행 노력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높은 증가세 지속 <전기비 1.3→1.1%>

- ❸ (건설투자)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, 기저 효과·정부 SOC 집행 증가 등으로 큰 폭 증가 <전기비 △3.5 → 2.9%>

④ (설비투자) 기계류 투자 조정, 차량용 반도체 공급차질 영향 등으로 감소 <전기비 $\Delta 2.4 \rightarrow \Delta 0.6\%$ >

⑤ (순수출) 기저 영향·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, 수출이 큰 폭 증가하면서 (+) 기여 유지 (성장기여도<전기비>, $0.9 \rightarrow 0.2\%p$)

* 국민계정 수출 (전기비, %) : ('21.1/4) 2.0 (2/4) $\Delta 2.0$ (3/4) 1.8 (4/4) 4.3

국민계정 수입 (전기비, %) : ('21.1/4) 2.9 (2/4) 2.8 (3/4) $\Delta 0.7$ (4/4) 4.3

국내총생산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(전기비, %)

	2020					2021					<기여도(%p)>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	
국내총생산 (전년동기비)	$\Delta 0.9$	$\Delta 1.3$ (1.5)	$\Delta 3.2$ ($\Delta 2.6$)	2.2 ($\Delta 1.0$)	1.1 ($\Delta 1.1$)	4.0	1.7 (1.9)	0.8 (6.0)	0.3 (4.0)	1.1 (4.1)	-
민간소비 [비중: 46.4]	$\Delta 5.0$	$\Delta 6.6$	1.2	0.2	$\Delta 1.3$	3.6	1.2	3.6	$\Delta 0.2$	1.7	<+0.8>
정부소비 [18.1]	5.0	1.6	1.0	0.1	$\Delta 0.4$	5.5	1.6	3.9	1.3	1.1	<+0.2>
건설투자 [15.2]	$\Delta 0.4$	0.1	$\Delta 2.9$	$\Delta 3.9$	3.5	$\Delta 1.5$	1.3	$\Delta 2.3$	$\Delta 3.5$	2.9	<+0.4>
설비투자 [9.0]	7.1	0.1	0.7	5.8	$\Delta 0.6$	8.3	6.1	1.1	$\Delta 2.4$	$\Delta 0.6$	< $\Delta 0.1$ >
내수 기여도(%p)	$\Delta 1.4$	$\Delta 2.0$	1.1	$\Delta 1.3$	$\Delta 0.5$	3.1	1.9	2.5	$\Delta 0.6$		<+1.1>
순수출 기여도(%p)	0.5	0.6	$\Delta 4.3$	3.6	1.6	0.8	$\Delta 0.3$	$\Delta 1.7$	0.9		<+0.2>

※ 정부부문은 적극적 집행 노력을 통해 성장에 +0.7%p 기여 <소비 0.2 / 투자 0.5%p>

* 정부 성장기여도(전기비, %) : ('21.1/4)+0.4 (2/4)+0.3 (3/4)+0.0 (4/4)+0.7 <연간 0.7%p>

2. '21년 연간 GDP 동향

□ 민간소비 반등, 견조한 수출·투자·재정 기여 등으로 4.0% 성장

① (민간소비) 백신보급 및 코로나 영향 축소, 소비진작책 등에 힘입어 반등, 다만 해외소비 위축으로 아직 위기 前 수준 하회('20→'21년, $\Delta 5.0 \rightarrow 3.6\%$)

* 외국인입국자/내국인출국자(만명, 1~11월 누적) : ('19)1,605/2,637 ('20)246/420 ('21)88/108

② (정부소비)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백신 구매(물건비) 및 접종(건보지출) 확대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 지속 ($5.0 \rightarrow 5.5\%$)

③ (설비투자) 국내외 경기회복, 반도체 업황 호조, 신산업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2년 연속 높은 증가세 유지 ($7.1 \rightarrow 8.3\%$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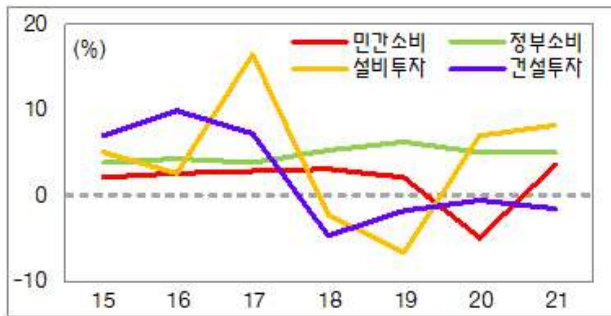
* 반도체매출 증가율(% , WSTS<'21.11월>) : ('19) $\Delta 12.0 \rightarrow$ ('20^e) +6.8 \rightarrow ('21^e) +25.6

- ④ (건설투자) 철근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,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(폭염·호우) 등에 따른 조업차질 영향으로 부진 ($\Delta 0.4 \rightarrow \Delta 1.5\%$)

* 철근가격(만원/톤) : ('19) 65.8< $\Delta 0.5\%$ > \rightarrow ('20) 63.7< $\Delta 3.2\%$ > \rightarrow ('21) 98.9<+55.3%>

- ⑤ (순수출) 대외여건 개선 등에 따른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작년보다 확대 ($0.5 \rightarrow 0.8\%p$)

지출 항목별 증감율 추이



내수·순수출 기여도 추이



3. 특징 및 평가

- ① 지난해 3/4분기 주춤했던 경기 회복세가 4/4분기에 다시 반등하면서 작년말 정부가 제시했던 연간 4% 성장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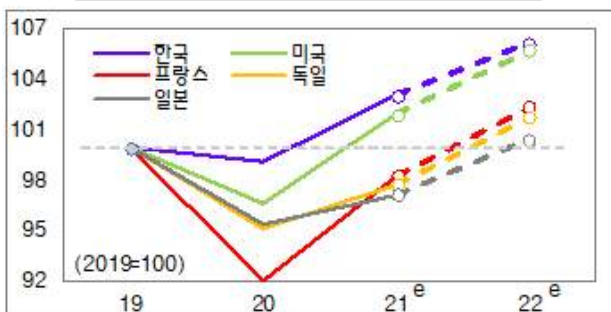
○ (성장 흐름) 4/4분기 성장률(1.1%)은 연말 국내외 코로나 재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 기대치(0.9~1.0%) 상회

- 작년 연간 성장률은 주요기관 전망에 부합하는 4%를 달성하면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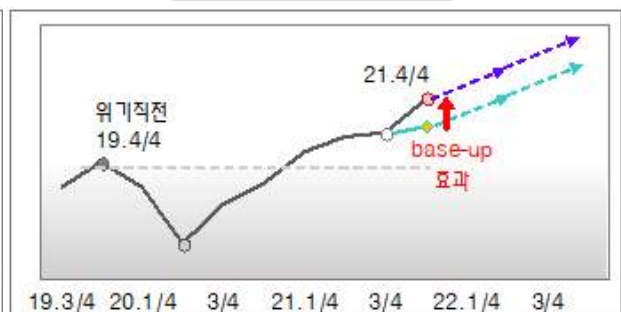
* G20 선진국 회복속도 <'19년(=100) 대비 '21년 GDP, 한국 外 OECD('21.12) 전망 기준>
(韓) 103.1 (美) 102.0 (濠) 101.3 (加) 99.2 (佛) 98.3 (獨) 97.8 (日) 97.2 (伊) 96.7 (英) 96.6

- '21.4/4분기 성장 호조로 금년 성장의 베이스(base)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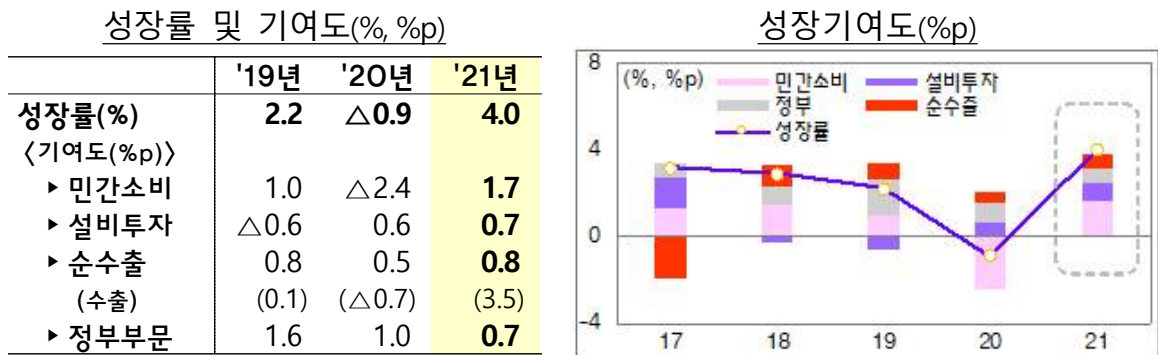
주요 선진국 GDP 회복속도 비교



GDP 성장경로 추이



- (성장 구성) “내수^{<가계>}-수출·투자^{<기업>}-재정^{<정부>}”이 고르게 4% 성장에 기여
→ “가계·기업·정부”가 힘을 합쳐 이룬 성과



❶ (내수) 백신보급·소비진작책 등에 힘입어 작년초 예상보다 반등폭 확대, 특히 내국인 국내소비는 위기 前 수준 큰 폭 상회

* 작년초 주요기관 대체로 '21년 민간소비 3% 내외 증가 전망 → 실적 3.6%

* 내국인 국내소비(조원) : ('19) 612 → ('20) 598<△2.3%> → ('21) 618<+3.4%>
[1/4~3/4분기 누적 기준, 4/4분기 세부항목별 민간소비 규모는 잠정치(3.3일)에서 발표]

- 다만, 해외소비를 포함한 전체 민간소비가 위기 前 수준을 하회하고, 대면서비스 부문 충격도 누적된 상황

* 민간소비(조원) : ('19) 894 → ('20) 849<△5.0%> → ('21) 880<+3.6%>

* 위기 前('21.1월 = 100) 대비 회복 수준('21.11월 산업활동(SA) 기준)
: (소매판매) 105.4 <(내구재) 112.8> (대면 서비스) **95.3** (비대면 서비스) 106.1

❷ (수출·투자)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, 이를 기반으로 설비 투자도 2년 연속 큰 폭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

* '21년 통관수출 : 6,444억불(+25.7%) / 무역규모 : 1조 2,595억불(+28.5%)

* 성장기여도(%p): [수 출] ('16)1.0 ('17)1.0 ('18) 1.6 ('19) 0.1 ('20)△0.7 ('21)**3.5**
[설비투자] ('16)0.2 ('17)1.4 ('18)△0.2 ('19)△0.6 ('20) 0.6 ('21)**0.7**

- 국민계정상 수출의 경우, '11년(+15.4%)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(9.7%) → 경기 반등을 주도(성장기여도 3.5%p)

* 수출(%): ('12)5.8 ('13)3.8 ('14)2.1 ('15)0.2 ('16)2.4 ('17)2.5 ('18)4.0 ('19)0.2 ('20)△1.8 ('21)9.7

③ (재정) '19~'20년 높은 성장 기여에 따른 기저 영향에도 불구하고, 확장 재정 및 적극적 집행 등으로 성장에 크게 기여(+0.7%p)

* '21년 본예산 558조원(+8.9%) + 2차재 추경 편성(1차 14.9조원 + 2차 34.9조원)

* 정부 성장기여도(%p) : ('15) 0.8 ('16) 0.9 ('17) 0.7 ('18) 0.8 ('19) 1.6 ('20) 1.0 ('21) 0.7

※ 상생국민지원금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, 내수보강(상생소비지원금·소비쿠폰) 등을 통한 민간부문 소비제고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,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더욱 확대

⇒ 그 결과, 우리 경제는 '20~21년 연속 글로벌 Top10 경제 강국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, 1인당 GNI는 3년만에 증가 전환하면서 3만 5천불 달성 예상 <3.3일 잠정치에서 발표>

* 1인당 GNI(달러) : ('17) 31,734 ('18) 33,564 ('19) 32,204 ('20) 31,881

② 다만, 금년 1/4분기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 및 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,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

⇒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 및 '22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수·투자·수출제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,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회복세를 제약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 강화